

진화한 ‘마초맨’ vs 마초걸 ‘틴타피나’… 스페인 카사 로호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

‘마초맨’이 진화했다. 마초맨 그란 비노로 말이다. 2014년 첫 선을 보인지 10주년을 맞아서다.

스페인 와인으로는 한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와인이 바로 와이너리 카사 로호의 마초맨이다.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취향에 맞았다. 와인의 맛과 품질은 기본으로 와인의 이미지를 마신다고 할 만큼 이해하기 쉬웠다. 한국 음식과 같이 마시기도 좋았고, 개성만점의 라벨은 매년 조금씩 바뀌며 새로움을 찾는 한국 소비자들이 질릴 틈을 주지 않았다.

스페인 카사로호의 헤드 소믈리에이자 세일즈 디렉터인 알레한드로 반 리사우트는 한국을 방문해 “마초맨 그란 비노는 손으로 포도를 수확하고, 양조한 와인 가운데서도 최고의 배럴만 골라 만들었다”며 “지난 10년 간 카사 로호가 배운 것과 느낀 것, 살아낸 여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카사로호의 헤드 소믈리에이자 세일즈 디렉터인 알레한드로 반 리사우트가 한국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금양인터내셔널

와인메이커인 호세 루이스 고메즈와 그의 동반자이자 공동창업자인 라우라 로호는 처음부터 올드 스쿨(Old School)의 관습을 모두 깨고자 했다. 가장 스페인다운 토착 품종을 선택했지만 기존 와인 생산자들과 달리 좀 더 과실미를 살리면서 균형감을 중시했다. 십여년 전만해도 스페인 와이너리들은 대부분 미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 목작하 게 오크 사용을 많이 했다.

사실 음식 역시 본연의 맛을 중시하면서 덜 부담스럽고 조미료를 적게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와인도 같은 흐름일 뿐이다. 이런 변화를 먼저 알아차렸던 게 주효했다. 2014년 마초맨 첫 출시와 함께 바로 주목을 받았으니 말이다. 병 라벨은 와인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와 개성으로 디자인했다.

이전까지 스페인 와이너리들이 정장을 입은 신사였다면 카사 로호는 노트에 스니커즈를 신은 신세대다. 지금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스니커즈를 신듯이 카사로호는 스페인 와인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

카사 로호의 진짜 반전은 테이스팅하면서 시작된다. 섬세한 마초맨과 힘이 있는 마초걸의 모습에서다. 다들 근육질 마초맨과 그와 대비되는 마초걸을 기대했을테니 말이다.

스페인은 예부터 모계 중심 사회였음을 떠올리면 와인의 반전 매력이 이해가 된다. 실세 와이너리에서 호세 루이스는 예술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며, 라우라 로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단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한다.

마초맨은 스페인 남동부 무르시아 지역에서 모나스트렐 품종 100%로 만든다. 프랑스에서 무르베드로 불리는 그 품종이다. 보통 블렌딩을 위해 소량만 쓰이지만 모나스트렐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테루아를 만나면서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됐다. 5월부터 9월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혹독한 기후 조건이지만 이를 견뎌 모나스트렐은 다른 지역에선 볼 수 없는 과실미와 산도, 우아함을 지니게 된다.

라우라 로호가 라벨에 등장해 ‘마초걸’이라는 애칭이 더 친숙한 ‘틴타 피나’는 전혀 다른 지역, 다른 품종이다. 스페인 프리미엄 와인산지인 리베라 델 두에로에서 템프라니요 품종 100%로 만든다. 틸타 피나는 템프라니요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진한 과실향에 바디감과 탄닌도 탄탄하게 받쳐준다.

너무나도 개성이 뚜렷한 두 개의 테루아, 다른 품종의 와인이지만 마초맨과 마초걸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실 하나다. 그들이 가진 모든 사랑과 열정을 한 병의 와인에 담겠다는 것.

알레한드로는 “우리의 와인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세대를 거치며 내려온 이 땅과 테루아, 품종, 지식의 정수”라

며 “와인 한 병 한 병마다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느끼는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마초맨 그란 비노가 마초맨 2세대 버전이라면 3세대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마초맨 블랙라벨이다. 초한정 시리즈로 아직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카사로호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지도 십여년이 다 되어간다.

그는 “한국의 와인 소비자들은 놀랍도록 모든 면에서 정교함과 탁월함을 추구하고, 카사 로호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한국은 파트너이자 영감의 원천이며, 우리 미래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smahn1@metroseoul.co.kr



마초맨 그란비노(왼쪽), 틸타피나. /금양인터내셔널

문화 단신

쿠광플레이, “썸바디 썸웨어 등 3편, 온 가족 함께 즐겨요”

쿠광플레이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만한 HBO와 맥스 오리지널 시리즈 3편을 8일 추천했다.

HBO 오리지널 시리즈인 ‘썸바디 썸웨어’는 언니를 잃은 후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캔자스주 출신의 샘이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조엘을 만나 특별한 모임에 참여하면서 열정과 즐거움을 되찾기 시작하는 내용을 담은 코미디 드라마다. 이 작품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작가조합에서 운영하는 WGA 어워드(TV)를 비롯해 크리티크스 초이스 어워드 등에서 6회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1961년 프랑스 요리를 미국에 알려 ‘국민 셰프’로 불렸던 줄리아 차일드를 모티브로 한 HBO 맥스 오리지널 시리즈 ‘줄리아’도 주목할 만하다. 드라마는 자신의 요리책을 홍보하기 위해 우연히 방송에 출연한 줄리아가 인생의 권태기에서 벗어나 삶의 기쁨을 찾는 이야기를 다룬다. 줄리아는 새틀라이트 어워드, BAFTA TV 어워드 등의 시상식에서 에피소드 코미디 부문 최우수 각본상, 여우주연상, 최우수 TV 시리즈를 포함해 다양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마지막 추천작인 ‘디아더 투’는 배우



지망생인 케리와 전직 댄서인 부록의 13살 막내동생 체이스 드림스가 갑작스럽게 스타덤에 올라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벌어지는 유쾌한 시트콤이다. 상처를 가진 어른들의 성장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할리우드와 SNS 문화를 날카롭게 꼬집어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이들 드라마 시리즈는 쿠광플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가박스 돌비 시네마서 ‘썬더볼츠*’ 등 3편 상영

메가박스가 시원한 액션이 가득한 5월 개봉작 세 편을 돌비 시네마에서 상영한다. 마블 액션 블록버스터 신작부터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신작까지, 박진감 넘치는 액션으로 짜릿함 선사할 라인업으로 구성된 이번 상영작은 돌비의 프리미엄 HDR 영상 기술 ‘돌비 비전’과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된 돌비 시네마에서 생생한 비주얼과 다이내믹한 사운드로 한 층 더 극대화된 보고 듣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지난달 30일에는 마블시네마틱유니버스(MCU)의 안티 히어로들이 뭉쳐

예측불가한 별(*)난 팀플레이를 펼치는 ‘썬더볼츠*’가 개봉했다.

세상을 지키던 수호자 ‘어벤저스’가 사라진 뒤, CIA 국장이 새로운 팀을 꾸리려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마블 작품에서 활약했던 캐릭터들이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10일에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귀멸의 칼날’ 일본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 차편’이 ‘덴고쿠 쿄쥬로’의 생일인 5월 10일을 맞아 돌비 시네마에서는 처음 개봉한다. 어둠 속을 달리는 무한열차



에서 혈귀를 처단하는 비밀조직 귀살대의 최강 검사 염주 덴고쿠와 탄지로 일행이 꿈과 현실을 조종하는 강력한 혈귀와 목숨을 건 결전을 벌이는 이야기를 그렸다.

17일에는 첩보 액션의 진수를 담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8번째 작품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개봉한다.

국가가 지닌 힘의 ‘악마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올린다, 내린다’ 하며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를 하면서 세계를 들었다 놔다 하고 있다. 트럼프가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걸자 뉴욕 증권 시장에서 한화로 경 단위의 돈이 빠져나갔다. 이쯤에서 드는 의문 하나. 미국 사람들은 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온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 마블 영화에서 세계 수호자로 활약하며 ‘미국이 곧 정의’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던 ‘캡틴 아메리카’는 USA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려고 만든 ‘거짓 세뇌용 가짜 분신’이었다.

유시민 작가가 쓴 ‘국가란 무엇인가’를 보면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저자는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폭력을 독점한 유일한 인간공동체로서 국가가 지닌 힘에는 모든 폭력에 잠복한 악마성이 있다”고 밝힌다.

국가권력으로 선을 혹은 악을 행할 수도 있다. 개인과 달리 국가의 악에는 한계가 없다. 개인이 저지르는 악은 국가가 방지하고 응징할 수 있지만, 국가가 저지르는 악은 누구도 쉽게 저지하거나 막지 못한다. 그래서 국가는 실제로 선 못지않게 크고 많은 악을 저질러 왔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악을 저지르는가. 작가는 “도덕이 개인의 내면에서 형성되는 이성적 의식인 데 반해, 국가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지음/둘베개

또는 집단을 지배하는 건 집단적 감정과 충동”이라며 “집단에는 양심이 없다”고 설명한다.

책은 “집단이 크면 클수록 공동의 지성과 목적에 도달하기 어려워지며, 불가피하게 순간적인 충동이나 직접적이고 무반성적인 목적과 연계를 맺게 된다”면서 “어떤 하나의 가치를 절대화해 다른 가치를 종속시키는 순간, 국가는 단일 가치가 지배하는 전체주의로 흐르게 된다”고 지적한다.

전체주의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정의를 파괴한다. 하나의 가치를 절대적 선으로 상정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재앙을 불러온다. 결국 국가를 바로 세우려면,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 사이에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334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ki1@



▲연준, 5월 기준금리 동결…파월 “인하 논의할 상황에 있지 않다” /사진 뉴시스

▲트럼프 “중국과 협상 위해 145% 관세 선제 철회 않을 것”

▲美 부통령 “러시아 요구 많아…러-우크라가 직접 대화해야”

▲인도 미사일 공격에 파키스탄은 접경지대 포격 ‘맞불’

▲푸틴, 전승절 앞두고 ‘반서방 연대’ 외교 총력…일시 휴전도 발효

▲트럼프 “영화 관세 100%”에…프랑스 “오히려 美 영화산업 피해”